

투데이

‘희망나무’ 긴급구호단 도움 받은 필리핀 수해민들

“땡큐 광주” 빛고을 온정에 감동

의료봉사에 수천명 몰려 식료품·물 후원 큰 도움

마닐라=최권일 기자

광주의 의료진과 봉사단으로 구성된 (사)희망나무 긴급 구호구호단 19명이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동안 최악의 홍수 피해를 입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긴급 의료 구호 활동을 펼치며 ‘신한류(新韓流)’ 열풍을 일으켰다.

구호의 손길을 간절히 원하고 있던 마닐라 주민들과 이재민들은 빛고을 광주의 따뜻한 온정과 광주의 ‘대동정신’에 감동해, 모두가 ‘땡큐(Thank you) 코리아’를 외치며 긴급 의료구호단에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긴급 구호단은 이틀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가장 큰 홍수피해를 입은 라구나주(州) 산페드로시 란다얀(Landayn) 자치구와 필리핀 이주여성 파스夸레니엘씨(여·41)의 친정마을인 칼루간(Calocan)시 판가람 마을 2곳에서 긴급 구호활동을 펼쳤다.

(사)희망나무가 긴급 구호단을 구성한 것은 파스夸레니엘씨와 국제 선교단체의 긴급 구호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파스夸레니엘씨가 지난 21일 친정마을인 칼루간에서 이번 홍수로 큰 피해를 입어 식료품과 생수 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구호를 요청했고, 필리핀에서 활동중인 비영리 국제 선교단체인 ‘빛과 소



지난 25일 필리핀 마닐라 라구나주 산페드로시 란다얀 자치구에서 무료 진료활동을 벌이고 있는 (사)희망나무 광주 긴급 의료구호단의 진료를 받기 위해 필리핀 이재민들이 줄을 지어 길게 늘어선 모습. /마닐라=최권일기자 cki@

금’의 이성호(32) 선교사가 지인을 통해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하면 서 긴급 구호단이 꾸러지게 됐다. 단 3일 만에 꾸러지는 촉박함이 있었지만, 미르치와 박석인 원장을 단장으로 아이퍼스트 아동병원 전성현 원장, 광주병원 김상훈 내과 원장, 아이안과 서정성 원장 등 4명의 의사와 각 병원의 간호사, 의료진 등 19명이 참여했다.

구호단은 이어 26일 필리핀 이주여성인 파스夸레니엘씨의 친정마을인 칼루간시를 찾아 8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이틀간의 구호 활동에는 광주지역 각계의 온정도 함께했다.

이날 구호단은 1200여 명의 이재

민을 진료했고, 광주업체인 남부철강의 지원을 받아 이재민 1500명을 위한 무료 배식도 진행했다.

이에 감동한 주민들은 구호팀에게 ‘땡큐 코리아, 땡큐 광주’를 외치며 감사의 표시를 전했다.

산페드로시 파타마(여·51) 사회 복지국장은 “홍수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란다얀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의료 및 음식 등 기본적인 것이 제공돼 주민들과 관계공무원을 대표해 광주 구호단에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구호단은 이어 26일 필리핀 이주여성인 파스夸레니엘씨의 친정마을인 칼루간시를 찾아 8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이틀간의 구호 활동에는 광주지역 각계의 온정도 함께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후원한 생수 ‘빛어울수’는 식수난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에게 생수가 됐고, 영암 마트에서 제공한 컵라면 등 식료품은 이들에게 고마운 구호품 중 하나였다. 광주은행 광주시청 지점은 이주여성 가족의 항공료를 후원했다.

박석인 미르치와 원장은 “5·18을 겪은 광주가 대표하는 정신은 정 의와 함께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고 베푸는 대동정신”이라며 “그동안 이주여성 친정마을 의료봉사를 해 온 의료진들이 해외 의료봉사 경험을 48시간 내에 해외 재해현장으로 떠나 진료를 할 수 있는 광주 긴급 구호단을 만들어보자는데 뜻을 같이 했고, 그러던 중 긴급 구호 요청이 있어 첫 긴급 구호단을 꾸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cki@

3D 한미합작사업 기술테스트 또 연기...우려 증폭

광주시의 3D 컨버팅(입체영상 변환) 분야 한미합작투자사업의 미국 현지 기술테스트가 또다시 연기됐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한미합작투자사업에 참여한 한국과 미국 측 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8일부터 30일까지 미국 LA 현지에서 미국 파트너인 K2AM 측이 보유하고 있다는 3D 컨버팅 기술력을 테스트하려고 했지만, 미국 측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기술테스트 날짜가 연기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미국 측 회사인 K2AM이 검사의 출국금지로 인해 한국 측 회사 대표인 김병술씨의 입국

날짜가 4일가량 늦어졌기 때문에 기술테스트도 며칠 늦춰야 한다는 입장을 통보해왔다”며 “현지 기술테스트도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애초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3~4일께 한미합작투자사업을 지속할 지를 결정하기로 했던 광주시는 결정 시기를 며칠 늦출 수밖에 없게 됐다.

K2AM측은 “검코의 김 대표가 검찰 수사로 인해 출국이 늦어지면서 지난 21일부터 갖기로 했던 프리테스트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김 대표가 프리테스트에 참여해 여러 가

지 기술적인 점검을 해야 했지만, 입장을 맞추지 못하는 바람에 사전작업을 진행하지 못해 부득이 연기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K2AM측이 김 대표의 출국 지연을 핑계로 기술테스트를 미루는 것인지, 아니면 애초 계획대로 테스트를 진행하되 기술적으로 2~3일 연기하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여서 광주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따라서 기술테스트 연기나 무산 여부는 28일 김 대표와 K2AM측의 협상 테이블 결과가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姜시장 “검코, 국제사기로 몰려는 세력 있다”

시의회·시민단체에 불만...“허위사실 유포 응남 않겠다”

강운태 광주시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3D(입체영상) 변환 한미합작투자사업(검코)과 관련해 시의회와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의 공세에 대해 27일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더는 응남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강 시장은 이날 확대간담회에서 “검코 문제의 핵심은 현재 성공한 것도, 실패한 것도 아닌 진행중이 있다는 것”이라며 “시민단체가 검코 문제에 대해 ‘국제사기다’ ‘시장이 책임져야 한다’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등의 자극적 문구를 쓰며 허위사실을 유포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이는 사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시한 뒤 “그동안 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이런 프로젝트는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공의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업에 대해 ‘시장이 책임있다’고 하는데 책임을 회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시장의 책임은 선거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며, 시장을 발목 잡고 계속 흔들려 될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속소리를 높였다.

강 시장은 또 “시민단체는 각종 시정에 대한 의혹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제기하지 말고 정식으로 고발하라”며 “시민단체 주장을 그대로 받아 쓰는 언론도 서운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의회에 대한 불만도 표시했다. 그는 “시장이 시의회 통제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하는데 100여 명의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해 상임위와 예결위, 본회의를 통과시켜 집행한 것이고 해당 상임위에 수차례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며 “시의회 특위의 권능과 기능을 존중하지만 시민의 이익을 다시 한번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내일 여수서 개막

여수가족부는 전남과 여수시의 공동으로 28~31일 여수 엠블호텔에서 ‘2012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3개국 학계·법조계·재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해외 한인 여성 리더들이 참가한다.

한국인 최초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명예교수 정미림(68)씨, 프랑스 베르사이유 미술대학 관화학과 종신 학과장 김명남(52)씨, 미국 로스앤젤레스 검찰청 검사로 19년째 근무하고 있는 박향련(50)씨, 중국 5대 은행 중 하나인 교통은행 지점장 이현선(53)씨 등이 눈에 띈다.

28일 전야 행사에 이어 29일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30일까지 500여 명의 국내·외 여성리더가 분야별 네트워킹과 상호 교류 시간을 갖는다.

홍원주 여수가족부 국제협력담당관은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가 일회적 만남의 단순한 친교가 아닌 지속적 교류를 통한 한인 여성들 간의 한인 여성 리더들이 참가한다.”

이날 행사에는 500여 명의 국내·외 여성리더가 분야별 네트워킹과 상호 교류 시간을 갖는다. 홍원주 여수가족부 국제협력담당관은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가 일회적 만남의 단순한 친교가 아닌 지속적 교류를 통한 한인 여성들 간의 한인 여성 리더들이 참가한다.”

광주 신축 야구장에 장애인 이용시설 확충

광주시는 내년 말 완공 목표로 신축 중인 야구경기장에 장애인 이용 편의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휠체어석과 시각·장애인 지정석 등 247석을 장애인석으로 설치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출입구에 근접 배치하도록 했다.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 이동 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전체 층에 설치한다. 시는 신축 야구장의 이 같은 시설을 토대로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무장애(BF) 예비인증을 신청했다.

총 사업비 994억 원이 투입되는 야구장은 지하 2층~지상 5층, 2만2102석 규모로 내년 말 완공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본사 인사

▲洪胤先(전북취재본부 김재주제) 의원면직 (8월 28일)

나로호 1단 로켓 이달말 나로우주센터 이송

국내 첫 우주발사체인 나로호의 3차 발사를 위한 1단 로켓이 러시아로부터 반입되고, 빠르면 오는 30~31일 고흥 나로우주센터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등에 따르면 러시아 발사체 제작 업체인 흐루니체프사에서 최근 완성된 나로호 1단 로켓이 오는 29일 오전 러시아 극적 대형 화물기 안토

노프 An-124에 실려 김해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2단으로 구성된 나로호의 추진체에 해당하는 1단 로켓은 길이 25.8m, 지름 2.9m, 무게만 130t에 달한다. 김해공항에 도착한 발사체는 간단한 성능검사를 마친 뒤 나로호가 발사될 고흥 나로우주센터로 옮겨지게 된다.

/오광록기자 kroh@연합스

무등산 춘설차, 특허청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

광주 동구는 27일 무등산 춘설차를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동구는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 등록대상에 선정돼 국비 1900여만원 지원받았다. 구는 지난해 용역대행사를 선정해 한국발명진흥회 광주 지회 주관으로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으며 다음달 중 특허청에 등록 출원할 방침이다.

동구는 무등산 춘설차를 생산하는 삼에다원에 대해 단체표장 법인 등록을 권고하는 한편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춘설차는 한국 남종화의 대가 의재 허백련(1891~1977) 선생이 무등산 자락에서 생산된 차에 붙인 이름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모집

1 연수일정 (2012년 제9기)

- 개강일시 : 2012. 9. 7(금) 기초A반 9:30, 기초B반 19:00 심화A반 9:30, 심화B반 19:00
•개강장소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모집기간 : 2012. 7. 16(월) ~ 2012. 8. 31(금)
•수업기간 : 2012. 9. 7(금) ~ 2012. 12. 21(금) (총 90시간)
•수 강 료 : ₩360,000

■ 모집인원 : 기초반 : A반, B반 각 30명

- 심화반 : A반, B반 (진급생과 편입생 약간명)
* 기초반 수료 정도의 실력이 인정되는 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편입 가능
■ 수업시간 : 매주 금요일, 토요일
A 반 : 금, 토 오전 09:30~12:30
B 반 : 금 야간 19:00~22:00 토 오후 14:00~17:00

■ 수료 후 특전

- 1,2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발급 수료증 수여
• 2단계 수료시 한문지도사 자격증 2개 동시 취득 기회 부여
① (사)한국국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장 발급 한문지도사(민간자격)
② 국가공인 기관장 발급 한문지도사(국가공인자격)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 급수 취득 기회 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한문학원 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추천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토, 일 공휴일 휴무)

- 전 화 : (062) 530-3873~3876
■ 담당교수 : H.P 010-2611-1171, 011-9712-1378
■ 광주은행 : 074-107-004114 (예금주 : 전남대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대출금리:연5.5%~ 대출금액:1,000만원~8,000만원

공무원 대출

과다대출·캐피탈·저축은행·대부업체의고금리를 이용중인 공무원을 위한 연5.5% 대출

이런분은 꼭!! 연락주세요
-과다대출로 추가대출이 어려운 분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실 분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 분

현재의 부채상황을 리모델링해 드립니다

Table with 2 columns: 리모델링전 (Before) and 리모델링후 (After). Rows include 부채현황, 농협중앙회, 씨티은행, 지역농협, 삼성카드론, 다불유저축, SC저축은행, 솔로몬저축, 대부업체, 총부채, 총부채비율.

예 시 : 행정6급이고 연봉이 5,000만원인 공무원의 경우입니다.

Table with 2 columns: 부채 리모델링 전 (Before) and 리모델링 후 (After). Rows include 부채현황, 농협중앙회, 국민은행, 씨티은행, 총부채, 총부채비율.

연5~15% 연체 추가비용 없음

하나로 채무통합 011-705-2230

등록번호 : 2011-3430067-25-5-00028 주소 :대구 서구 평리로 215, 302호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정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편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특수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